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 국제원자재가격, 높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전망 -

목 차

I. 원유

II. 곡물

III. 금속

(첨부) 원자재 선물옵션 비상업포지션 차트

국제원자재가격, 높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전망

김희진 | 책임연구원(3705-6225)

오정석 | 전문위원(3705-6231)

■ [국제원자재가격지수] 3월 에너지, 농산물, 비철금속 등 전부문 상승(전월말 대비)

- 에너지 비중이 높은 S&P GSCI(S&P Goldman Sachs Commodity Index) 지수는 7.6% 상승. (하위 부문별로 에너지 +8.8%, 농산물 +6.1%, 산업금속 +7.0%, 귀금속 +2.8%, 축산물 +4.2% 등). CRB(Commodity Research Bureau Index) 지수는 9.7% 상승
 - 니켈(+32.2%), 美 천연가스(+28.2%), 美 휘발유(+14.0%), 아연(+13.8%), 두바이(+9.3%), 소맥(+8.4%), 원당(+8.3%), 옥수수(+7.3%), 브렌트(+6.9%), 구리(+5.0%) 등 상승. 주식(-5.1%), 대두(-1.6%)는 하락

■ [전망] 러시아궤 공급 쇼크로 원자재가격은 당분간 현 강세기조를 유지할 전망

- 유가 :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는 한 유가는 강세를 유지할 전망. 주요 기관들의 연평균 유가 전망이 상향조정된 가운데 변동성도 대폭 확대 예상. 재고 감소, 산유국의 여유생산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가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 곡물價 : 러-우크라 협상 상황에 따라 큰 폭의 변동성을 이어갈 가능성. 북반구 파종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농업기상여건의 향방에도 주목. 협상의 진전은 곡물가격에 강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나, 각종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전망
- 비철금속價 :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니켈, 알루미늄 등 주요 비철금속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 우크라이나 변수가 가격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으나, 평화협상이 단기간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
- 주요 투자은행들의 원자재 가격 전망(3.31일 기준)

	3월(a) ¹⁾	'22.2Q(f) ²⁾	3Q(f) ²⁾	4Q(f) ²⁾	'23.1Q(f) ²⁾
WTI	108.26	98 (+21)	93 (+19)	98 (+27)	88 (+17)
옥수수(\$/부셸)	7.474	7.18 (+1.55)	6.88 (+1.65)	6.58 (+1.58)	6.25 (+1.25)
소맥(\$/부셸)	11.248	10.58 (+2.78)	10.08 (+2.78)	9.29 (+2.19)	8.31 (+1.21)
구리(\$/톤)	10,240.4	9,925 (+225)	9,983 (+583)	9,800 (+50)	9,650 (+50)
알루미늄(\$/톤)	3,509.7	3,325 (+538)	3,500 (+888)	3,285 (+760)	3,167 (+567)

주: 1) 3월 평균값(average),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표 1〉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¹⁾

		'21년 평균	'22년 평균	2/28	3/31	전월말 대비(%)	전년말 대비(%)	연중최고 ²⁾	연중최저 ²⁾
Index	CRB	209.22	269.14	269.07	295.18	+9.7	+27.0	309.12(3/8)	166.69('21.1/4)
	S&P GSCI	517.32	667.22	673.05	724.19	+7.6	+29.0	853.27(3/8)	406.51('21.1/4)
	에너지	229.53	317.11	319.75	347.97	+8.8	+37.9	429.55(3/8)	161.05('21.1/4)
	농산물	414.77	500.80	511.04	542.26	+6.1	+21.8	592.02(3/8)	365.68('21.1/4)
	산업금속	456.60	549.40	547.63	586.13	+7.0	+17.4	757.84(3/8)	379.26('21.2/2)
Oil & Gas	WTI(\$/배럴)	68.08	95.01	95.72	100.28	+4.8	+33.3	130.5(3/7)	47.18('21.1/4)
	두바이(\$/배럴)	69.01	97.15	97.02	106.01	+9.3	+38.6	132.47(3/9)	49.53('21.1/5)
	브렌트(\$/배럴)	70.95	97.90	100.99	107.91	+6.9	+38.7	139.13(3/7)	50.56('21.1/4)
	휘발유(\$/배럴)	89.13	118.47	117.47	133.96	+14.0	+43.1	163.40(3/7)	57.20('21.1/5)
	천연가스(\$/mBtu)	3.723	4.588	4.402	5.642	+28.2	+51.3	7.346(1/27)	2.414('21.1/22)
Agriculture	소맥(\$/부셸)	7.020	9.133	9.280	10.060	+8.4	+30.5	13.40(3/4)	5.9325('21.3/31)
	옥수수(\$/부셸)	5.819	6.731	6.975	7.488	+7.3	+26.2	8.00(3/4)	4.795('21.1/4)
	대두(\$/부셸)	13.747	15.616	16.443	16.183	-1.6	+21.8	17.65(2/24)	11.7125('21.11/9)
	쌀(\$/cwt)	13.34	15.23	15.37	16.01	+4.2	+9.4	15.58(2/2)	12.21('21.6/17)
	원당(¢/파운드)	17.88	18.62	18.00	19.49	+8.3	+3.2	20.69('21.11/18)	14.67('21.3/31)
Metals	금(\$/온스)	1,799.0	1,878.8	1,909	1,937.4	+1.5	+5.9	2,070.5(3/8)	1,676.89('21.3/8)
	구리(\$/톤)	9,293.5	9,977.7	9,883.5	10,375	+5.0	+6.7	10,845(3/7)	7,705('21.1/28)
	알루미늄(\$/톤)	2,485.9	3,255.3	3,368.5	3,491	+3.6	+24.3	4,073.5(3/7)	1,945('21.1/19)
	니켈(\$/톤)	18,466.9	26,086.5	24,282	32,107	+32.2	+54.7	55,000(3/7)	15,665('21.3/9)
	아연(\$/톤)	3,007.3	3,724.9	3,666	4,173.5	+13.8	+18.1	4,896(3/8)	2,546.5('21.2/2)
	납(\$/톤)	2,189.4	2,322.6	2,387	2,416	+1.2	+4.9	2,700(3/8)	1,908('21.3/18)
	주석(\$/톤)	31,172.4	42,973.4	45,224	42,910	-5.1	+10.4	51,000(3/8)	20,380('21.1/4)
친환경에너지 관련 품목									
Solar	폴리실리콘(\$/kg)	24.57	32.24	33.05	32.87	-0.5	+12.7	35.81('21.10/20)	10.57('21.1/4)
Batteries	코발트(\$/톤)	51,577.1	74,677.03	74,000	82,000	+10.8	+16.3	78,000(3/7)	34,000('21.1/4)
Renewable	에탄올(\$/갤런)	2.11	2.16	2.16	2.16	-	+1.1	2.48('21.6/1)	1.338('21.1/4)
CO ²	탄소배출권(€/톤)	53.63	82.87	81.82	76.32	-6.7	-4.9	97.88(2/8)	31.28('21.1/18)

주 : 1) WTI 및 휘발유, 천연가스는 NYMEX 근월물 가격, 브렌트유는 ICE 근월물 가격, 두바이유는 현물가격, 농산물은 CBOT, ICE 근월물 가격, 금속, 코발트는 LME 근월물 가격(금은 현물가격), 폴리실리콘은 PV Insights의 All Grades 주간 평균 현물가격, 탄소배출권은 ICE 근월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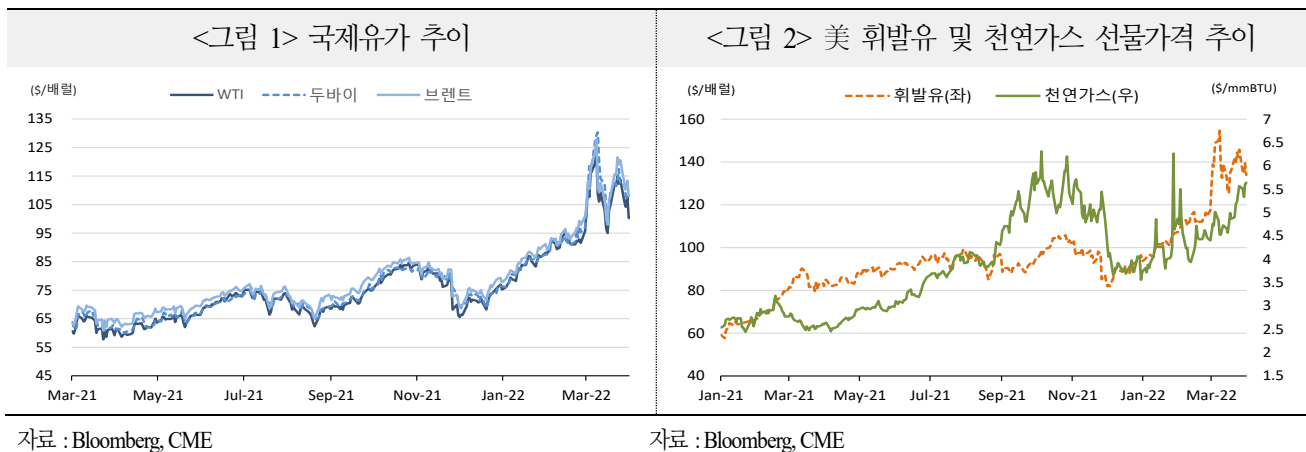
2) 연중 최고 및 최저는 '21년 1월 4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장중가격 기준. 적색은 전월중 기준 기록 경신을 의미.

자료 : Bloomberg

I. 원유

□ [동향] 3월 국제유가는 급등락을 반복한 가운데 상승

- WTI 선물가격, 3.31일 \$100.28으로 전월말 대비 +4.8%
 -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서방의 對러시아 추가제재 부과 검토, 산유국 여유생산능력 부족, 미국 등 OECD 재고 감소세 등으로 \$100대의 강세 유지. 월말 미국의 비축유 방출(6개월간 100b/d) 결정으로 상승폭 축소
 - 美 휘발유는 유가 강세가 석유제품으로 파급되면서 초강세(\$133.96, +14.0%). 美 천연가스는 독일의 노드스트림2 승인 중단, 對유럽 수요 증가 등으로 급등세(+28.2%)



□ [주요 변수] 우크라이나 사태, 이란 핵협상, 글로벌 수급 및 재고 등

〈표 2〉 강세/약세 요인별 구분

강세 요인	약세 요인
우크라이나 사태 여유생산능력 부족, 재고 감소	미 금리인상 가속화 수요 전망 하향, 이란 핵협상 복원

- 러시아산 원유 기피가 지속되는 가운데 EU의 對러 제재 동참은 지연될 소지
 - 향후 수개월 간 러시아(일일 원유 수출량 500만배럴, 석유제품 300만배럴로 세계 공급의 11% 담당)의 원유수출이 일일 300만배럴 가량 감소할 소지. 러시아산 석유 기피가 확산되자 러시아 정유업체는 설비 가동을 대폭 축소(Gunvor Group 등)
 - 러시아의 원유생산은 향후 3년 간 부진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Standard Chartered)
 - 독일, 헝가리 등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전면 금수조치가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 한편, 영국(EU 탈퇴)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수입을 줄일 계획

- OPEC 여유생산능력 부족. OPEC 감산정책도 유지. 이란 핵협상 진전 가능성
 - 사우디·UAE·쿠웨이트가 30일 이내 생산을 개시해 90일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여유 생산능력은 일일 200~300만배럴로 러시아의 공급부족분을 메우기에 부족
 - 3.19~20일 예멘 후티반군의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 이후 사우디는 원유시장 안정을 책임질 수 없다고 발언. OPEC은 4~5월에도 기존 감산완화 계획을 유지하기로 결정
 - 약 1년 간 교착 상태인 이란 핵협상은 4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며, 최종 타결 여부에 관심이 집중
- 금번 러시아 사태로 세계 원유수요 둔화 가능성
 -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로 금년 2~4분기 세계수요 전망을 일일 130만배럴 하향 조정, '22년 전체적으로 일일 9,960만배럴(전년대비 -95만배럴)로 전망(IEA)
- 글로벌 경유(diesel) 재고 '08년 이후 최저 수준(Reuters)
 - 유럽의 디젤 연료 재고는 '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올해 이맘때의 과거 5년 평균 대비 8% 낮은 수준. 미국은 과거 5년 평균 대비 -21%
- [전망]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는 한 유가는 강세를 유지할 전망. 주요 기관들의 연평균 유가 전망이 상향조정된 가운데 변동성도 대폭 확대 예상
- 원유재고가 계속 감소하고 여유생산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 파괴(demand destruction)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유가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Goldman Sachs)
 - 美 EIA는 3월 전망 보고서(STEO)에서 '22년 연평균 브렌트유 전망치를 배럴당 \$105.22로, WTI 전망치를 \$101.17로 한달 전 대비 약 27% 상향조정
 - 미 통화정책 정상화, 달러 강세, 이란 핵협상 타결 등 유가 하락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금과 같은 강세국면에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
-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원유수출이 극히 제한적인 국가에만 일부 공급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유가가 \$150 이상으로 치솟는 오일쇼크에 직면할 가능성
 - 美 셰일오일, 캐나다 오일샌드, 이라크 등의 증산이 기대되나 단시일 내 러시아 부족분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여 심각한 공급난이 우려

〈표 3〉 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유가 전망(\$/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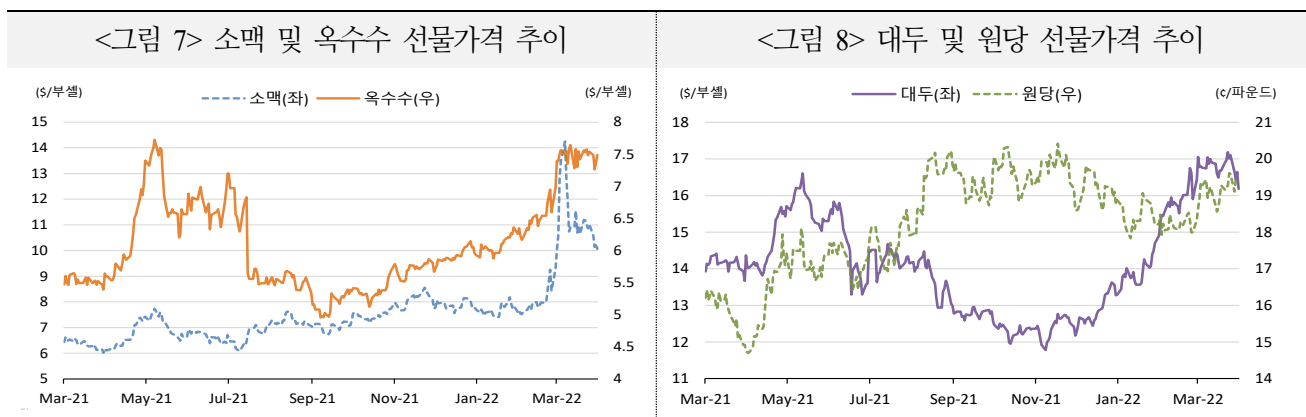
	3월(a) ¹⁾	'22.2Q(f) ²⁾	3Q(f) ²⁾	4Q(f) ²⁾	'23.1Q(f) ²⁾
WTI	108.26	98 (+21)	93 (+19)	98 (+27)	88 (+17)
브렌트	112.46	100 (+21)	94 (+18)	95 (+21)	90 (+16)

주: 1) 3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II. 곡물

□ [동향] 3월 주요 곡물가격은 큰 폭의 변동성 속 혼조세

- 3.31일 CBOT 소맥 선물가격은 \$10.06으로 전월말 대비 +8.4%
 -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된 월초 50% 이상 급등하며 \$14를 상회, 이후 차익 매물 등으로 월 후반 상승폭 축소. 전체적으로 전향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
 - 옥수수는 역대 최고치 수준에서 고공행진을 지속하며 전월말보다 7.3% 상승. 대두도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후 차익매물 등으로 월말 소폭 하락 마감(-1.6%)



자료 : Bloomberg, CBOT

자료: Bloomberg, CBOT

□ [주요 변수] 러-우크라 협상, 국제유가, 북·남미 농업기상여건, 美 1분기말 재고 등

-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휴전 또는 종전에 합의할 경우 소맥과 옥수수의 공급 우려가 크게 완화될 가능성
 - 전쟁으로 금년도 우크라이나의 곡물 파종면적은 지난해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고, 생산량도 대폭 감소 예상. 흑해지역 항구 봉쇄로 수출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금년 상반기 소맥 수출량은 전년동기 대비 -30% 예상)
 -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이 파종이 시작되는 4월 중에 타결될 경우 우크라이나의 금년 곡물생산 차질은 최소화될 수 있겠으나, 타결이 불발 또는 파종이 끝나는 5월 이후로 늦춰진다면 글로벌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될 소지
- 국제유가 움직임이 곡물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강화
 - 국제유가 상승은 ❶전통적으로 석유화학을 기초로 하는 화학비료 생산 및 가격을 통해 곡물의 생산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❷최근에는 바이오연료(에탄올, 바이오디젤) 시장을 통한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

- 즉 유가 상승 → 대체재인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 → 원료인 옥수수(에탄올)와 대두(바이오 디젤) 수요 증가 등의 경로를 통해 영향

• 미국의 경우 전체 옥수수 수요 중 에탄올 부문이 34%를 차지하며, 대두유의 경우 전체 수요의 25%를 바이오 디젤이 차지(USDA)

○ 미국 및 남미 기상여건에 대한 우려 여전

- 美 겨울밀 생산지역인 캔자스주의 가뭄비율은 3월 중순까지 98% 이상을 기록했으며 3.22일에는 강우의 영향으로 77%로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매우 건조한 상황. 미국 전체적으로 최소 6월까지 건조한 기후가 이어질 전망(NOAA)
- 극심한 가뭄의 영향으로 아르헨티나의 '21/22년 옥수수 수율(yield,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10년래 최저치 예상. 대두 생산도 지난해의 4,500만톤보다 적은 4,050만톤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추가로 하향조정될 가능성

○ 미 주요 곡물의 재고 : 옥수수 및 대두는 전년동기를 하회, 소맥은 상회

- 미 농무부가 발표한 3월초 기준 옥수수 재고는 78.5억부셸로 전년동기 대비 2% 증가, 대두 재고는 19.3억부셸로 +24%. 반면 소맥은 10.25억부셸로 22% 감소.
- 한편 금년 주요 곡물의 경작면적 전망은 옥수수의 경우 예상보다 250만 에이커가 줄어든 반면 대두는 220만 에이커 증가(옥수수와 대두는 경작지역이 중첩되므로 옥수수의 경작면적 감소(증가)는 대두의 증가(감소)로 연결)

□ [전망] 러-우크라 협상 상황에 따라 주요 곡물은 큰 폭의 변동성을 이어갈 가능성. 북반구 파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농업기상여건의 향방에도 주목

- 러-우크라이나 협상의 진전은 소맥과 옥수수 가격에 강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다만 서방의 각종 제재가 풀리지 않을 경우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가능성
- 미국의 경우 4월부터 옥수수, 보밀 등 주요 곡물의 파종이 시작. 소맥 재배지역의 가뭄 완화 여부와 콘벨트 지역으로의 가뭄 확산 여부가 가격 향방을 좌우할 소지

〈표 4〉 주요 투자은행들의 곡물 가격 전망(\$/부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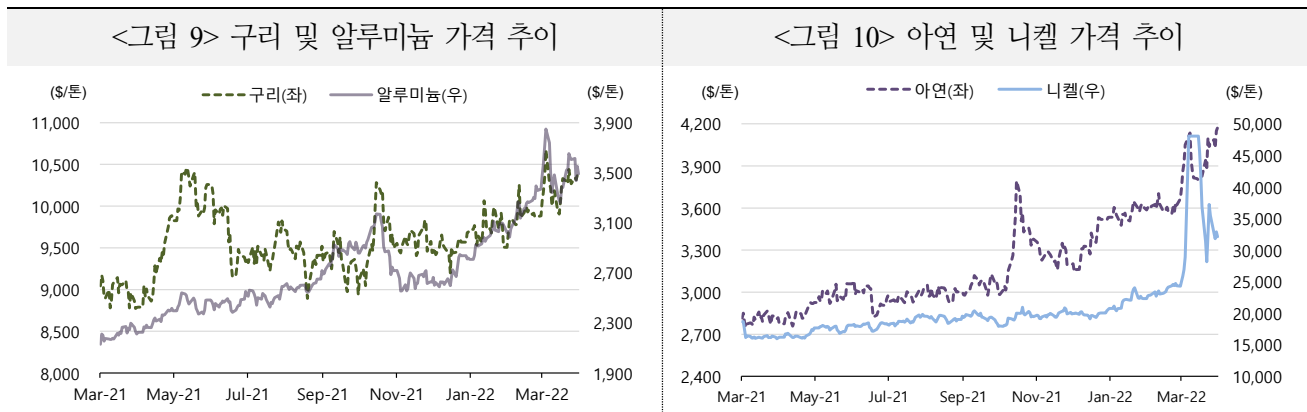
	3월(a) ¹⁾	'22.2Q(f) ²⁾	3Q(f) ²⁾	4Q(f) ²⁾	'23.1Q(f) ²⁾
옥수수	7.474	7.18 (+1.55)	6.88 (+1.65)	6.58 (+1.58)	6.25 (+1.25)
소맥	11.248	10.58 (+2.78)	10.08 (+2.78)	9.29 (+2.19)	8.31 (+1.21)
대두	16.797	16.38 (+4.25)	15.38 (+3.78)	14.38 (+2.98)	13.75 (+3.55)

주: 1) 3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III. 금속

□ [동향] 3월 비철금속 가격은 대부분 상승

- LME 니켈 선물가격, 3.31일 톤당 \$32,107로 전월말 대비 +32.2%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차질이 지속되는 가운데 中 칭산그룹의 숏커버링으로 폭등세를 보였으나 이후 시장 개입으로 \$3만 초중반으로 상승폭 축소. 구리는 탈탄소화 움직임에 따른 설비투자 수요, 페루 광산지역 주민의 도로봉쇄 등으로 +5.0%
 - 알루미늄은 러시아發 공급차질,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유럽 제련소들의 감산,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중국 제련소들의 감산 등으로 3.6% 상승. 아연은 러시아發 공급망 차질 우려,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철강수요 증가 등으로 +13.8%
- 금 가격은 안전자산 선호,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 등으로 상승(\$1,937.4, 전월말 대비 +1.5%)



자료: Bloomberg, LME

자료: Bloomberg, LME

□ [주요 변수]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 경기, 수급 여건, 품목별 이슈 등

- 경기침체 우려 확산. 중국은 재봉쇄 돌입
 - 3.29일 미 국채시장에서 2년물 금리가 장중 2.407%를 기록해 10년물(2.404%)을 역전(통상 장단기금리 역전은 경기침체의 전조로 해석). 5월 미 연준은 50bp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JPM은 5월 50bp, 6월 50bp 인상으로 전망을 상향조정)
 - 중국(비철금속의 최대 수요처) 상하이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 부분적으로 시행하던 봉쇄를 연장·확대 시행할 계획. 이에 따라 중국의 수요둔화 가능성 대두
-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산업금속 공급 축소 가능성
 - 제련·정련의 에너지 집약적 특성으로 인해 최근의 에너지가격 상승은 금속가격에 강세요인. 앞으로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전력 배급제가 도입될 경우 금속 제련업체들의 감산이 불가피해 공급부족이 심화될 가능성(Capital Economics)

- 니켈 : 3월중 LME 가격 폭등(이틀만에 +250%)으로 일주일 간 거래 중단
 - 러시아 사태로 인한 공급부족 속 공매도 손실 만회를 위한 중국 Tsingshan社의 대량 매수(숏커버링)로 폭등했으나, 당국 개입으로 문제가 일부 해결된 상황
 - LME 재고는 3월말 7.3톤(전주대비 -1.9%)으로 지난해 4월말부터 48주 연속 감소
 - 알루미늄 : 중국 제련소들은 감산하는 추세
 -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중국이 전략적으로 생산능력을 줄임에 따라 전년대비 공급부족이 확대될 전망('21년 -160만톤→'22년 -203만톤, BoA)
 - 구리 : 공급부족 확대 전망. 페루 최대 광산의 생산능력은 확대 예상
 - 최근 부동산시장 부진으로 중국의 수요가 소폭 둔화되었으나 견조한 탈탄소화 관련 수요로 금년 공급부족('21년 -24만톤→'22년 -44만톤)이 확대될 전망(BoA)
 - 페루의 최대 광산인 Las Bambas의 확장 프로젝트가 정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생산능력은 연간 38만~40만톤으로 확대될 전망. 한편, Southern Copper社의 페루 2위 Cuajone 광산은 2월말 지역주민들의 도로봉쇄 시위로 공급차질 지속
- [전망]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니켈, 알루미늄 등 주요 비철금속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리스크 프리미엄은 현재 가격에 약 40% 반영된 것으로 추정. 이는 우크라이나 분쟁이 완화될 경우 가격이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평화적인 협상이 단기간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Capital Economics)
 - 전기차 배터리용 고순도 니켈의 최대 공급국인 러시아의 공급부족, Tsingshan社의 숏포지션 물량 잔존 및 일부 트레이더들의 숏포지션 지속으로 니켈 가격은 당분간 현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BoA 등)
 - 한편 미국의 2월 인플레이션(CPI, 7.9%)이 40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러시아發 원자재 공급충격으로 3월 물가상승도 심화될 것으로 보여 美 금리인상이 가속화될 소지. 이는 비철금속 상승압력을 일부 상쇄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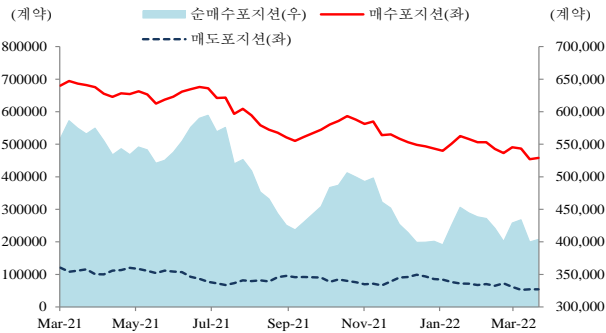
〈표 5〉 주요 투자은행들의 주요 기초금속 가격 전망(\$/톤)

	3월(a) ¹⁾	'22.2Q(f) ²⁾	3Q(f) ²⁾	4Q(f) ²⁾	'23.1Q(f) ²⁾
구리	10,240.4	9,925 (+225)	9,983 (+583)	9,800 (+50)	9,650 (+50)
알루미늄	3,509.7	3,325 (+538)	3,500 (+888)	3,285 (+760)	3,167 (+567)
니켈	33,735.2	25,750 (+5,425)	24,250 (+3,975)	24,500 (+5,000)	24,042 (+4,542)
아연	3,955.7	3,718 (+368)	3,693 (+585)	3,600 (+498)	3,433 (+633)

주: 1) 3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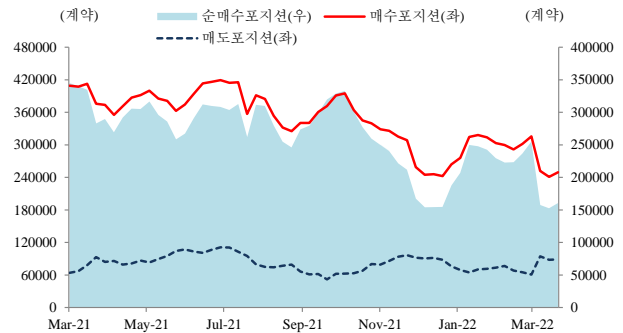
(첨부) 주요 원자재 선물옵션 비상업(Non-commercial) 포지션 Charts

〈NYMEX WTI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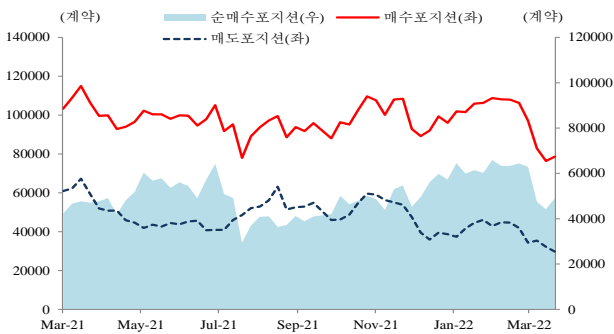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ICE 브렌트유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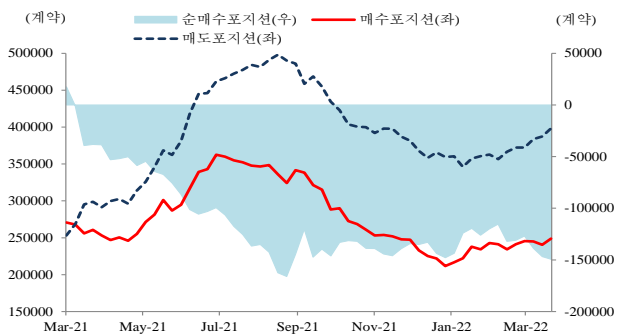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NYMEX 휘발유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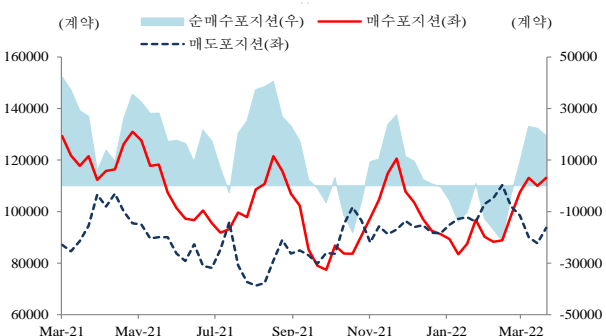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NYMEX 천연가스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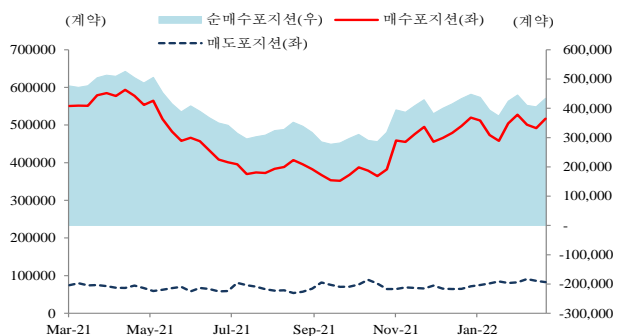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CBOT 소맥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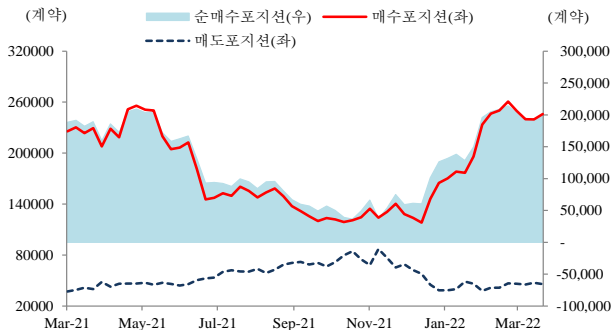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CBOT 옥수수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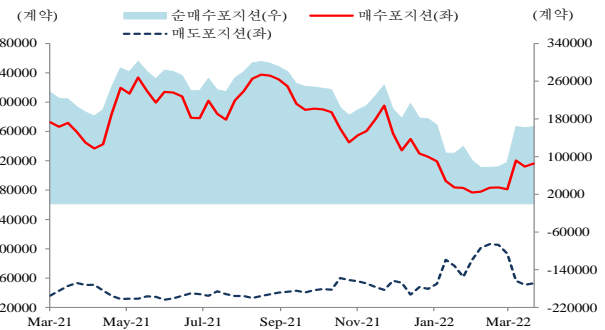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CBOT 대두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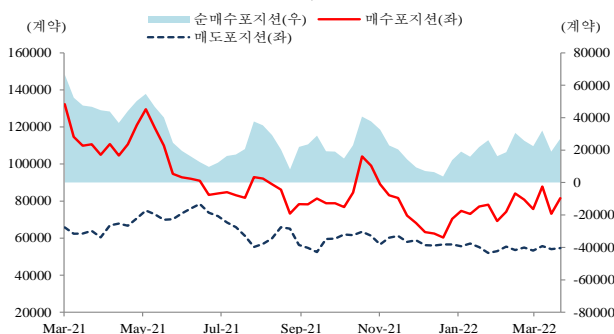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ICE 원당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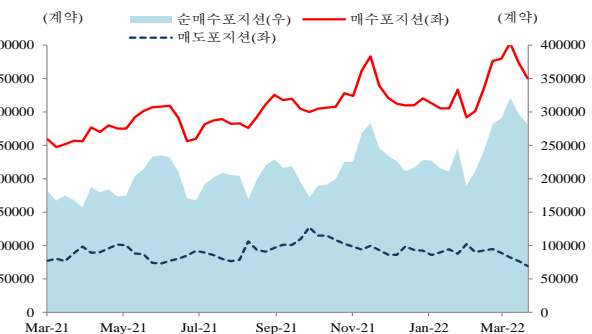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COMEX 구리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자료: Bloomberg, CFTC

〈COMEX 금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자료: Bloomberg, CFTC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5 혹은 kimhj@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